



이런 농장도 있다

채란양계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취재부〉

채란양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농장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양계인은 타성적인 자세로 체념을 하고 있다.

긴 불황의 와중에서도 ‘일에 성공을 원하거나 그 일에 먼저 사랑을 가져라’는 신념으로 양계업에 사랑을 갖고 업을 영위해 나가는 몇몇 농장을 찾아 그러한 양축가들이 어떻게 불황을 이기고 현재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가를 취재하였다.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는 자세로 양계업을 천직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채란양계업계의 불황이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79년말부터 시작되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80년말부터는 회복되리라고 추정해왔지만 82년에 와서도 곡선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료협회에서는 장기간 양계산업이 불안한 가운데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를 서울대 농대 오봉국박사팀에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난 1년간(80. 9.1~81. 8.31) 대부분의 농가들이 (규모 생산성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산비를 밀도는 적자경영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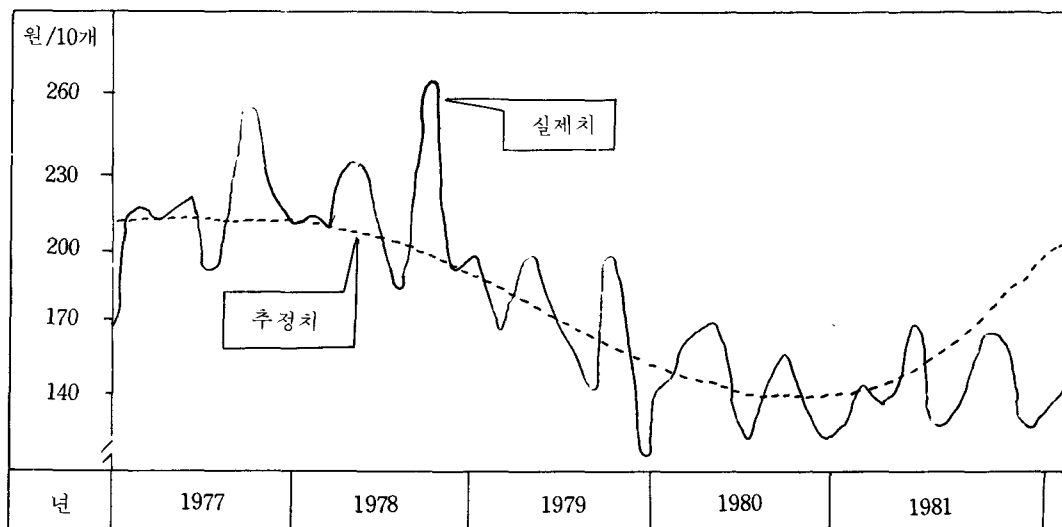
이 보고서가 특히 기장을 잘하는 농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양계경영이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적자폭을 사료외상이나 또는 경영비로 계산하여 겨우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1)에서 보면 산란율이 75%가 넘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65% 미만도 있어 이들 농장의 소득면에서 보면 연간 수당 소득이 1,331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본지에 오봉국박사가 수회에 걸쳐 집필하기 때문에 그날을 참조하기 바라며 다만 본고에서는 실제 이들 잘하는 농장과 중등정도의 농장을 찾아가 보았다.

계란 농가판매 실질가격



자료 KREI

(표 1) 산란율별 산란계 수당 연간소득 및 순수익 (단위 : 원)

산란율별	구분	조 수 입 (A)	경 영 비 (B)	생 산 비 (C)	소 득 (A - B)	순 수 익 (A - C)
65% 미만		8,445.31	8,676.21	9,867.22	-230.90	-1,421.91
65~70		9,045.93	8,586.02	9,414.10	459.91	-368.17
70~75		9,599.87	9,128.32	10,140.81	471.55	-540.94
75%이상		10,283.20	9,183.05	10,653.47	1,100.15	-370.27
평 균		9,323.10	8,882.57	9,903.89	440.53	-580.79

자료 : 생산성 제고방안 (KFA '82)

내 농장은 어떠한가?

양계업을 그것도 특히 채란양계를 하다보면 타성에 빠지기 쉽게 된다.

비단 양계업 뿐만이 아니고 매일 되풀이되는 똑같은 작업은 지루할 뿐이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기계화 되어 버린다. 그저 기계적으로 할 뿐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청포도 사상에서 이효석씨는 변화없는 생활은 자살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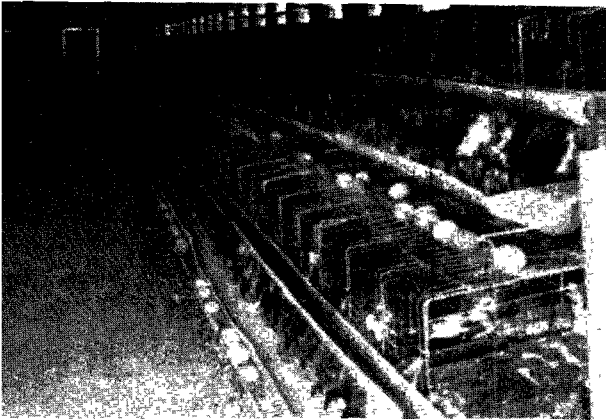
많은 양계인들이 변화없는 생활에서의 탈피를 위하여, 탈피의 한 방법으로 규모가 조

금 커지면 주인은 관리원에 모든 것을 맡리게 되고 관리원은 성능나쁜 기계로 되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이웃농장은 입사기준 산란율이 75%를 넘는데 자기농장의 65% 산란율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도 된다.

닭은 알을 잘 낳아 주는데 산란율이 내려가 기만 하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닭이 알을 낳지 않아 산란율이 떨어지는 농장이 있다.

사료의 품질 때문에 산란율에 차이가 있는 농장들이 있는가하면 농장의 관리상태 때문에 산란율이 오르고 내린다. 닭을 사랑하는



△ 사랑을 갖고 닭을 기를 때 산란율은 오르고 수익은 증대될 것이다(사진은 겉으로는 평범한 양계장(위)이지만 그간 불황을 견뎌내고 지금 한창 증축 중에 있다(아래))

마음 때문에 산란율이 오르고 닭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산란율이 떨어진다.

양계를 천직으로 아는 농장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라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을 줄로 안다.

양계를 하고 싶어 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계를 하는 서울 근교의 (김포군 검단면) 한 양계장을 소개한다.

만5천수 규모의 박찬복, 이일선씨가 종업원

2명과 함께 경영하는 양계장은 그간 2년에 걸친 불황을 잘 견디어 내고 지금 한창 증축중에 있는 것을 보아 사료외상으로 오랜 불황후 호경기를 예상하고 계사를 증축하는구나 하고, 우선 불황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는 인사후에 사료외상값이 얼마나 되나 물어 보았다.

이곳에 양계장을 만든지 4년되는데 그간 사료를 외상으로 사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양계외에 다른 수입원도 없고 그간 양계만을 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일반적인 계사, 천정에는 벗짚을 두껍게 넣어 단열하고(스티로폼보다 훨씬 값싸고 단열효과도 좋다는 설명이 었다)양쪽 옆은 개방한 평범한 계사이었다.

계사는 같아도 계사안은 다르다

장화를 갈아 신고 계사를 구경하였다. 일견하여 평범한 계사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천장에 먼지는 있어도 점등하는 전구는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 있었다

한가지를 보면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무엇 잘못된 것이 없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

성계사는 물론 육추사의 흘린 사료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실패였다. 기자의 방문을 사전에 통보 받은 것도 아니었고 케이지 밑에는 계분이 그대로 쌓여있고 육추사에도 깔집이 두껍게 깔려있고 모이통 주위의 깔집속에도 흘린 사료는 없었다.

간단한 일 갖지만 이러한 세심한 관리가 혹자 경영을 갖어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통 청소는 굵은 알을 낳게한다

작년말 미국남부의 한 산란계 농장을 그 농장 계열회사 기술부장의 안내로 찾아 볼 기회가 있었다.

무창계사에 모든 사양관리가 자동화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설은 책에서 많이 보아 왔지만 물통이 특이하여 몇가지 물어 본적이 있었다.

기술지도부장의 답변은 간단하다. 지나치게 위생적이고 편리주의적인 급수만을 생각하다 보면 닭이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어 계란의 주성분인 물 섭취량 부족 때문에 난중이 가벼워 진다는 것을 알아내고 자체 계열 회사의 농장 모두에 급수시설을 바꾸고 난중을 크게 개선하였다는 설명을 들은적이 있다.

이 회사는 난분의 50여종의 계란 가공품을 생산하여 대부분 일본 중동에 수출하는 회사이므로 난중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다.

이번 이일선씨와 박찬복씨의 농장에서 물통청소를 하지 않으니 난중이 적어 지더라는 체험담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철저한 기록과 기록의 분석검토에서 스스로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더욱 값있다.

매일 매일 물통청소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더 굵은 알을 낳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물통청소가 힘들거나 피롭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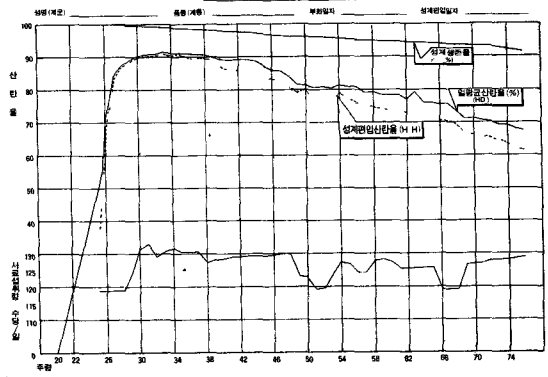
△노력여야에 따라 수익의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인과 함께 사는 닭들도 행복(?)하다고 하겠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한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철저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이 농장은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농장에서 기록한 기록을 소개하고자 한다.

A 농장의 성적 (일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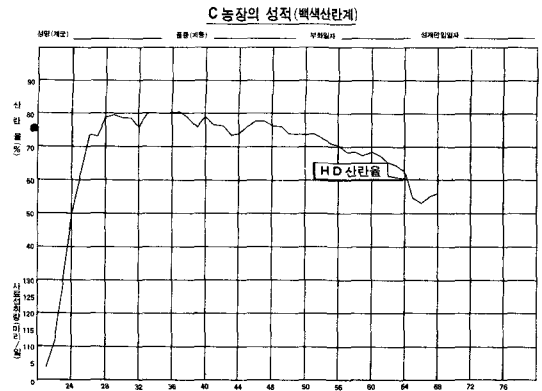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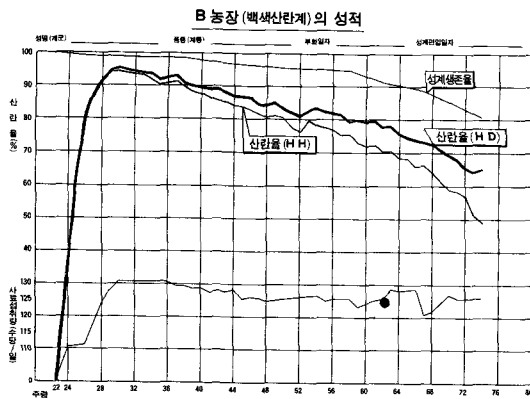


기별 산란능력 총괄표

기	별	주령	아리수	산란율	산란수	입사기율	산란수누계	아리/일(%)	사료/계당
기	별	주령	도리제사%	일 평 산 H D Prod%	입사기율 산란율 Hen Housed	산란수누계 Cum Eges	산란수누계 H.H.Prod%	아리/일(%) Feed/Day%	사료/계당 Feed Eges
1		25-28	0.8	69.8	69.6	19.49	118.8	170.2	
2		29-32	0.7	90.4	89.9	44.66	129.8	143.5	
3		33-36	0.5	91.5	90.4	69.98	131.3	143.4	
4		37-40	0.8	90.1	88.5	94.75	128.7	142.8	
5		41-44	0.7	88.8	86.3	118.90	129.1	145.4	
6		45-48	0.5	85.4	82.6	114.02	129.8	152.0	
7		49-52	0.8	81.11	78.2	164.90	121.2	149.4	
8		53-56	0.7	80.87	77.1	185.49	125.8	155.7	
9		57-60	0.6	78.67	74.5	206.36	125.8	161.5	
10		61-64	0.5	77.34	72.8	226.74	127.0	162.8	
11		65-68	0.6	74.84	70.0	246.34	121.05	161.8	
12		69-72	0.4	70.95	66.0	264.83	126.9	178.8	
13		73-76	1.0	66.28	63.0	282.43	128.4	188.1	
14									
15									
계			8.6	80.74	77.61	282.43	126.4	156.6	

평균 80% 산란 90% 이상 3개월 산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농장이 얼마나 될까?

이 성적이 야외성적이 아니고 어느 특수농장의 시험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농장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양계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별신란능력총괄표

기 별	주 령	마 리 수		산 란 율		산란수 수 계	사 료	
		도태제사	일평균 산란율	입사기준 산란율	마리/일		사료/계당	
1	23-26	0 25	48 74	48 66	13 63	110 02	232 98	
2	27-30	0 25	92 15	91 81	39 33	125 14	135 80	
3	31-34	0 40	93 99	93 27	65 44	131 21	139 60	
4	35-38	0 79	91 58	90 42	90 74	130 53	130 53	
5	39-42	0 79	89 01	86 75	115 03	128 16	143 98	
6	43-46	0 45	86 76	83 93	138 53	127 20	146 69	
7	47-50	0 94	84 50	81 22	161 23	125 79	148 86	
8	51-54	0 69	82 33	78 53	183 26	126 29	153 41	
9	55-58	0 15	80 80	76 53	204 68	125 32	155 09	
10	59-62	3 87	79 09	72 26	224 81	124 87	157 88	
11	63-66	1 74	75 60	67 92	243 83	128 75	170 18	
12	67-70	3 97	71 65	62 75	261 50	123 86	172 79	
13	71-74	4 91	63 03	53 22	276 40	126 68	201 01	
14								
15								
계		19 20	80 20	75 94	276 40	125 94	157 03	

기별 신란능력 총괄표

기 별	주 령	마 리 수		산 란 율		산란수 수 계	사 료	
		도태제사 (%)	일 평균	입사기준	마리/일		사료/계당	
1	21-24	34	0 50	23 66	23 63	6 62	95 8	404
2	25-28	43	0 63	72 33	71 74	26 72	110 8	153
3	29-32	116	1 69	78 36	76 91	48 26	116	161
4	33-36	102	1 49	80 59	77 76	70 03	129 79	161
5	37-40	118	1 53	78 67	74 61	90 92	129 g	164
6	41-44	105	1 74	75 30	70 21	110 57	128 g	170 g
7	45-48	119	1 58	76 98	70 41	130 28	129 0	167 5
8	49-52	108	1 29	75 00	67 52	149 18	129 7	172 9
9	53-56	88	1 34	71 73	63 57	166 90	125 5	174 9
10	57-60	92	1 76	67 8	59 1	183 44	121 9	179 843
11	61-64	327	4 76	64 8	55 3	198 91	118 9	183 3
12	65-68	3,226	47 57	54 0	34 4	208 54	105 0	174 4
13								
14								
15								
계		4,478	65 20	68 5	62 1	209 54	121 0	176 7

(표 2) 80%를 넘는 평균산란율

항 목	성 계	산 란 율		산란지수	사 료	평균 1 일 사료소비량
		H D	H H			
농장별	생존율 %	%	%	개	g/개	g
일반농장평균	84.4	73.4	67.3	245	169	123.2
A	92.4	80.7	77.6	262.4	156.6	126.4
B	85.7	80.2	75.9	267.8	157	125.9
C	73.3	68.5	62.1	224.5	176.7	121.0

(평균성적은 KFA 연구조사서에서)

우리는 흔히 C농장의 경우를 우리나라 양계장의 평균성적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많은 양계장들이 C 농장과 같은 성적을 얻고도 느끼는 것이 없고 일반농장 평균성적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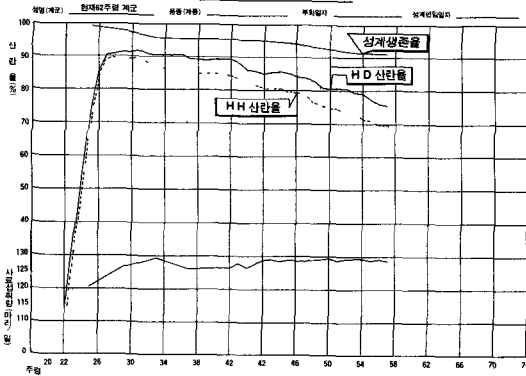
닭 한마리가 20개의 알을 더 낳아준 것이 불

황을 전디어 내고 계사를 더 지을 수 있게 하였고, 20개를 더 낳아준 양계장은 계사가 비어갈 수밖에 없어진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나?

산란율(HH)을 높이고 수익을 올리기를 모두 원하면서도 왜 잘 안되며 A와 B농장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라는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D 농장의 성적 (갈색계)



기별 산란능력 총괄표

기 별	주 령	마리수 (HENS)		산 란 률		상계생존율	사 료
		도매제사 (%)	잔 계	입 사 기	산 란 율		
			H D Prod	H H Prod	Cum Eggs	마리/일 (6)	사료/계당
			Hen	Hen	Hen Housed	Feed/Day	Feed/Egg
1	22-25	1.0	44.8	44.7	12.53	120.7	268.2
2	26-29	1.3	89.2	87.6	37.05	127.2	142.5
3	30-33	1.1	91.1	88.2	61.76	128.3	140.8
4	34-37	0.8	90.5	86.9	89.43	126.7	123.1
5	38-41	0.3	89.3	85.3	113.32	126.7	141.9
6	42-45	0.2	87.3	83.2	136.62	127.3	145.8
7	46-49	1.3	85.2	80.5	159.15	128.2	159.5
8	50-53	1.4	83.3	77.4	180.83	128.4	154.2
9	54-57	1.0	80.5	73.9	201.521	128.7	159.8
10	58-61	0.5	77.3	70.4	221.24	128.6	166.5
계			74.5	76.76	268.67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는 A와 B농장의 경우 이들이 80%의 산란율과 270개의 계란을 생산하도록 잘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잘 움직여 주었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끊임없이 지도 감독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편하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한번쯤 안해도 별 큰 영향이 없겠지 하는 요행심 때문에 게을러 지기가 쉽다.

많은 기술정보가 양축가들에게 양계강습회나 각종 잡지등 문서로 전달되지만 이런 것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 제고방안이 그동안에도 여러번 제시되었으나 이제는 양축가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다만 A와 B농장의 경우처럼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농장과 경쟁에서 뒤지면서도 이런 것들이 불황의 타만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양계선진국에서는 제열생산 체제로 생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열주체나 협동조합이 80%의 산란을 하도록 끊임없는 농가 지도와 감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A와 B농장의 경우처럼 사료공장의 유능한 판매사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록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사양관리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되는가를 확인 지도하는 경우는 매년 성장 발전하고 있음이 다시 입증되었다.

이제라도 부화장 또는 사료공장이 상품을 판매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고객들 농장의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그들의 생산성이 A와 B면 농장과 같은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지도확인 할 때, 계란의 생산비는 더욱 낮아지게 되고 소비가 증가되어 내실을 기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장을 지도할 직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상품의 판매로 모든 것이 끝나는 현실이 계속되는 생산성 제고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제 양축가들도 지속적인 지도와 서비스가 없는 회사 제품의 보이지 않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양계장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자금부족이라고 느끼고 자금의 여유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식구조에서는 자연 자금 지원(사료의상), 무모한 확장, 파잉생산, 불황의 전철이 되풀이될 따름이다.

요즘 길을 다니면 많은 건물에 큰 글씨로 써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플레이와 더불어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